

대형체육시설 실태조사 현황 및 이용률 개선방안

2012. 10

국회의원 김희정

1988년 서울올림픽을 시작으로 2002년 한·일 월드컵, 2011년 대구에서 개최된 세계육상선수권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경험으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에 앞둔 우리나라는 1만명 이상 수용이 가능한 대형체육시설을 전국의 90여개를 보유하고 있다.

스포츠 강국으로 점차적으로 도약하고 있는 시점에서 대형체육시설을 90여개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형 체육시설 설계부터 지리적인 위치와 국민들이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물들이 많지 않아, 국내외스포츠 및 주요행사 유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더욱이 야구 및 축구 등 프로스포츠가 활성화됨에 따라 관객은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형체육시설의 적자는 매년 줄지 않고 늘고 있다. 특히 야구만해도 경기당 평균관객이 1만5천여명으로 작년과 비교하여 1700여명이 증가했지만, 서울잠실야구장을 제외하곤 다른 구장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대형체육시설의 적자운영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직접적인 원인요소로 이어지고 있어, 화성시 같은 경우 종합경기타운은 애물단지로 비유하고 있으며, 인천시 같은 경우는 2014년 아시안게임 반납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일부 제기된 바 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형체육시설을 설계할 때부터 시설의 입지 여건 및 이용률 제고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자료집은 최초로 국내 1만 명 수용이 가능한 대형체육시설을 실태조사하여, 수입 대비 적자비용을 알아봄으로써 현 상황에 맞는 시사점 도출 및 대안을 모색하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

2012년 8월
국회의원 김희정

- I. 서론 1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 가. 연구의 필요성 2
 - 나. 연구의 목적 2
 -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3
 - 가. 연구의 내용 3
 - 나. 연구방법 4
- II. 대형체육시설 실태조사 결과 5
 - 1. 대형체육시설의 운영현황 6
 - 가. 대형체육시설 건립 현황 6
 - 나. 지역별 분석현황 8
 - 다. 경기장 유형별 분석현황 24
 - 2. 대형체육시설 운영 및 시설보수비 현황 28
 - 가. 대형체육시설 적자운영 및 시설보수비 운영현황 28
 - 나. 대형체육시설 중 흑자 운영현황 29
- III. 결론 31
 - 1. 대형체육시설 이용률 제고방안 32
 - 가. 흑자 내는 5곳의 특징 32
 - 나. 적자 내는 곳의 공통적인 특징 33
 - 다. 해외 대형체육시설 운영 사례 35
 - 라. 정책제언 37
- IV. 부록 39

< 표 목차 >

- <표 1> 서울지역 내 체육시설 현황 9
- <표 2> 부산지역 내 체육시설 현황 10
- <표 3> 대구지역 내 체육시설 현황 11
- <표 4> 인천, 대전지역 내 체육시설 현황 12
- <표 5> 광주, 울산지역 내 체육시설 현황 13
- <표 6> 경기지역 내 체육시설 현황 15
- <표 7> 강원지역 내 체육시설 현황 16
- <표 8> 충청지역 내 체육시설 현황 18
- <표 9> 전남·북지역 내 체육시설 현황 20
- <표 10> 경남·북지역 내 체육시설 현황 22
- <표 11> 제주지역 내 체육시설 현황 24
- <표 12> 월드컵경기장 현황 25
- <표 13> 전국 1만명 수용 가능한 야구장 현황 27
- <표 14> 전국 1만명 수용 가능한 체육시설의 수입·지출 현황 28
- <표 15> 전국 92곳 체육시설의 총시설개보수비 현황 29
- <표 16> 전국 92곳 중 흑자를 내는 5곳의 체육시설 현황 29
- <표 17> 부록-전국 대형체육시설 92곳의 운영현황 39

< 그림 목차 >

- <그림 1> 서울월드컵경기장 내 월드컵물 시설현황 33
- <그림 2> 도교돔 및 주변시설 현황 36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가. 연구의 필요성

□ 대형체육시설은 1만명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곳으로, 종합경기장을 비롯하여 월드컵경기장, 야구장 등이 이에 해당됨. 이는 올림픽경기나 월드컵, 세계선수권대회, 프로경기 등을 위해 마련된 곳으로 주된 수입원은 국제 및 국내 주요스포츠 경기개최 및 체육·문화행사유치를 위한 대관과 입장료 등이 해당됨.

□ 최근 전국체전을 비롯한 주요 스포츠 및 국제경기들이 서울이외 지역에서도 개최됨에 따라 전국의 대형체육시설이 늘고 있음. 그러나, 개최를 앞둔 준비차원에서 대형체육시설을 건립하고 있어, 주요행사 이후 시설의 이용률이 떨어짐. 또한, 해마다 시설의 유지보수를 위해 시설개보수비를 투입하고 있어 시설의 운영적자폭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임.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직접적인 원인 요소로 지적되고 있어 본 정책집에서는 대형체육시설의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현황을 살펴보고 정책을 제안하고자 함.

나.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대형체육시설의 초창기 사업목적과 함께 사용이용률을 높이

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현재 운영상황을 조사함. 본 연구의 목적을 좀 더 구체적으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음.

- 첫째, 전국의 1만명 이상 수용가능한 대형체육시설의 총사업비와 수입, 지출 등을 조사하여 시설당 한해 적자 평균 및 시설관리비를 조사함.
- 둘째, 지역별로 분리하여 수도권의 차이를 비교하여 체육시설의 설립현상이 실제 일어나고 있는지 확인하고, 적자의 주요 원인을 예측함.
- 셋째, 대형체육시설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스포츠 종류에 따른 인기도에 따라 시설의 운영현황을 분석할 수도 있음.
- 넷째, 실태현황을 토대로 한해 평균 비용을 추산하여 손익구조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까지 논의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음.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가. 연구의 내용

- 전국의 대형체육시설을 파악하기 위해 우선, 문화체육관광부에 자료를 요청했으나, 전국적으로 조사된 내용이 없었음.

- 문화체육관광부는 체육진흥과에서 전국의 체육시설을 보유한 지자체와 관련기관에 배포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함.

1) 실태조사

- 실태조사는 전국의 모든 체육시설을 대상으로 건립당시 총사업비와 연간이용일수와 이용객수, 국내·제 경기유치건수 및 체육문화행사유치건수를 조사하여 총수입과 시설관리비, 인건비 등 총지출비용을 정리하여 상세히 기술함.

-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1)손익구조를 분석하여 흑자 및 적자 운영현황을 조사하여 상세히 기술 2) 대형체육시설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스포츠 종류에 따른 인기도에 따라 시설의 운영현황을 분석함. .

2) 운영평가

- 실태현황을 토대로 한해 평균 비용을 추산하여 손익구조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까지 논의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음.

나. 연구방법

- 문화체육관광부는 체육진흥과에서 전국의 체육시설을 보유한 지자체와 관련기관을 대상으로 1만명 수용이 가능한 체육시설의 건립당시 사업비와 연간 수입 및 지출 현황을 조사함.

II

대형체육시설 실태조사 결과

1. 대형체육시설의 운영현황

가. 대형체육시설 건립 현황

- 전국의 1만명 이상 수용이 가능한 체육시설은 총 92곳으로 이중 서울 특별시 및 광역시는 총 27곳임. 서울은 잠실종합운동장, 목동운동장, 효창운동장, 잠실야구장, 목동야구장, 잠실실내체육관, 서울월드컵경기장 등으로 총 7곳임. 부산은 아시아드주경기장, 사직야구장, 사직실내체육관, 구덕주경기장, 구덕야구장 등으로 총 5곳임. 대구는 시민운동장주경기장, 시민야구장, 대구스타디움 등으로 총 3곳임. 인천은 인천월드컵경기장, 시립문학야구장 등으로 총 2곳임. 광주는 무등야구경기장, 월드컵경기장 등으로 총 2곳임. 대전은 한밭야구장, 월드컵경기장, 한밭주경기장 등으로 총 3곳임. 울산은 종합운동장주경기장과 문수월드컵경기장 등으로 총 2곳임.
- 경기지역의 대형체육시설은 수원종합운동경기장, 수원야구장, 성남탄천종합운동장, 성남종합운동장, 안산 와스타디움종합경기장, 안양종합운동장, 부천종합운동장, 용인종합운동장, 고양종합운동장, 평택 소사벌레포츠타운 종합운동장, 평택서부공설운동장, 의정부종합운동장, 화성종합경기타운, 하남종합운동장 및 국민체육센터, 이천시 종합운동장, 동두천시 종합운동장, 여주종합운동장 등 총 17곳임.
- 강원지역의 대형체육시설은 춘천 송암스포츠타운 종합경기장, 원주중

합경기장, 강릉종합운동장, 속초종합경기장, 삼척공설운동장, 정선종합경기장 등으로 총 6곳임.

- 충북은 청주종합경기장, 제천종합운동장 등으로 총 2곳이며, 충남은 천안시종합운동장, 공주시민운동장, 보령종합경기장, 아산이순신종합운동장, 논산시공설운동장, 홍주종합경기장, 예산공설운동장 등으로 총 7곳임.
- 전북은 전주종합경기장(육상, 축구장), 전주야구장, 전주월드컵경기장, 군산월명야구장, 익산공설운동장, 정읍종합경기장, 남원공설운동장, 고창공설운동장 등 총 8곳이며, 전남은 목포유달경기장, 여수진남경기장, 여수망마경기장, 순천팔마종합운동장, 영광종합운동장 등으로 총 5곳임.
- 경북은 포항종합운동장, 경주시민운동장, 김천종합운동장, 안동시민운동장, 구미시민종합운동장, 영주시민운동장, 영천시민운동장, 상주시민운동장, 칠곡종합운동장 등 총 9곳이며, 경남은 창원종합운동장, 마산종합운동장, 마산야구장, 창원축구센터, 진주공설운동장, 진주종합경기장, 김해운동장, 밀양공설운동장, 양산종합운동장, 고성군종합운동장, 거창종합운동장 등 총 11곳임.
- 제주지역은 제주종합경기장 주경기장과 제주월드컵경기장 등 총 2곳임.

나. 지역별 분석현황

- 서울지역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체육시설 운영현황을 보면 ▲잠실종합운동장 총사업비는 463억원(수용인원 6만9천여명)으로 5년간 총 적자액은 392억원이었으며, 5년간 총 시설개보수비는 175억원 ▲목동운동장 총사업비는 85억원(수용인원 2만여명)으로, 5년간 총 적자액은 92억원이며, 5년간 총 시설개보수비는 66억원 ▲효창운동장(수용인원 1만5천여명), 5년간 총 적자액은 16억원이며, 5년간 총 시설개보수비는 2억원 ▲목동야구장 총사업비는 79억원(수용인원 1만명)으로, 5년간 총 적자액은 118억원, 5년간 총 시설개보수비는 220억원 ▲잠실실내체육관 총사업비는 54억원(수용인원 1만2천여명), 5년간 총 적자액은 497억원, 5년간 총 시설개보수비는 207억원임. 서울월드컵경기장과 잠실야구장을 제외하곤 매년 적자 운영상태임. 서울월드컵경기장(시설투자비 2060억원, 수용인원 6만6천여명)은 5년간 총 71억원에 시설개보수비를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경기과 K리그, 대형쇼핑몰, 영화관 유치하여 5년간 470억원의 흑자를 내고 있었음. 잠실야구장 역시 마찬가지로 5년간 총 시설개보수비로 86억원을 사용했어도, 5년간 총 16억원을 흑자 냈고 있었음. <표1참조>

<표1-서울지역내 체육시설 현황>

| | 경기장명 | 일반현황 | | 2007~2011년 | |
|----|----------|--------|--------|------------|-------------|
| | | 총사업비 | 수용인원 | 총 시설개보수비 | 총 흑적자액 |
| | | 계 | | | |
| 서울 | 잠실종합운동장 | 463억원 | 69,950 | 175억3089만원 | -392억4939만원 |
| | 목동운동장 | 85억원 | 20,236 | 66억398만원 | -92억0318만원 |
| | 효창운동장 | - | 15,194 | 2억9674만원 | -16억3768만원 |
| | 잠실야구장 | 126억원 | 25,455 | 86억8488만원 | 16억5481만원 |
| | 목동야구장 | 79억원 | 10,600 | 118억9819만원 | -220억3722만원 |
| | 잠실실내체육관 | 54억원 | 12,835 | 207억9291만원 | -497억2065만원 |
| | 서울월드컵경기장 | 2060억원 | 66,806 | 71억6077만원 | 470억4853만원 |

<출처: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출한 자료 토대로 김희정의원실에서 분석>

□ 그러나, 지방은 거의 적자운영을 면치 못하고 상황임.

부산지역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시설 운영현황을 보면 ▲아시아드 주경기장 총사업비는 2306억원(수용인원 5만3천여명)으로, 5년간 총 적자액은 625억원이었으며, 5년간 총 시설개보수비는 8억원 ▲사직야구장의 총사업비는 135억원(수용인원 2만8천여명)으로 5년간 총 적자액은 696억원이었으며, 5년간 총 시설개보수비는 4억원 ▲사직실내체육관 총사업비는 229억원(수용인원 1만4천여명)으로 5년간 총 적자액은 694억원이었으며, 5년간 총 시설개보수비는 4억원 ▲구덕주경기장의 총사업비는 18억원(수용인원 2만4천여명)으로 5년간 총 적자액은 493억원이었으며, 5년간 총 시설개보수비는 5억원 ▲구덕야구장의 총사업비는 6억원(수용인원 1만여명)으로 5년간 총 적자액은 495억원이

었으며, 5년간 총 시설개보수비는 8천여만원이 소요됨. <표2 참조>

<표2-부산지역내 체육시설 현황>

| | 경기장명 | 일반현황 | | 2007~2011년 | |
|----|-------------|-----------------|----------|------------|-------------|
| | | 총사업비 | 수용인원 | 총 시설개보수비 | 총 흑적자액 |
| | | 계 | | | |
| 부산 | 아시아드 주경기장 | 2306억 1200만원 | 5만3,769명 | 8억7248만원 | -625억9878만원 |
| | 사직야구장 | 135억 64만원 | 2만8,000명 | 4억1900만원 | -696억4190만원 |
| | 사직 실내체육관 | 229억 5300만원 | 1만4,099명 | 6억1700만원 | -694억8021만원 |
| | 구덕 주경기장 | 18억 28만원 | 2만4,363명 | 5억9579만원 | -493억6683만원 |
| | 구덕야구장 | 6억 99만원 | 1만,724명 | 8010만원 | -495억6132만원 |

<출처: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출한 자료 토대로 김희정의원실에서 분석>

□ 다른광역시도 시설의 운영상황은 비슷함. 대구지역내 2007년부터 2011년까지시설 운영현황을 보면 ▲시민운동장 주경기장의 총사업비는 47억원(수용인원 3만여명)으로, 5년간 총 적자액은 108억원이며, 5년간 총 시설개보수비는 10억원 ▲시민야구장의 총사업비는 25억원(수용인원 1만명)으로 5년간 총 적자액은 120억원이었으며, 5년간 총 시설개보수비는 11억원, ▲대구스타디움의 총사업비는 2836억원(수용인원 8만여명)으로 5년간 총 적자액은 151억원이었으며, 5년간 총 시설개보수비는 10억원에 달함. <표3 참조>

<표3-대구지역내 체육시설 현황>

| | 경기장명 | 일반현황 | | 2007~2011년 | |
|----|--------|---------------|------|------------|-------------|
| | | 총사업비 | 수용인원 | 총 시설개보수비 | 총 흑적자액 |
| | | 계 | | | |
| 대구 | 시민운동장 | 47억 | 3만명 | 10억6697만원 | -108억5379만원 |
| | 주경기장 | 2200만원 | | | |
| | 시민야구장 | 25억 2000만원 | 1만명 | 11억4042만원 | -120억993만원 |
| | 대구스타디움 | 2836억원 | 8만명 | 10억4744만원 | -151억4217만원 |

<출처: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출한 자료 토대로 김희정의원실에서 분석>

- 인천지역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시설 운영현황을 보면 ▲인천월드컵경기장의 총사업비는 2543억원(수용인원 5만여명)으로, 5년간 총 적자액은 112억원이며, 5년간 총 시설개보수비는 41억원 ▲문학야구장의 총사업비는 25억원(수용인원 1만명)으로 5년간 총 적자액은 64억원이었으며, 5년간 총 시설개보수비는 31억원이 들어감. 대전지역내 상황도 비슷함. 대전지역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시설 운영현황을 보면 ▲한밭야구장의 총사업비는 36억원(수용인원 1만여명)으로 5년간 총 적자액은 54억원이었으며, 5년간 총 시설개보수비는 31억원 ▲대전월드컵경기장의 총사업비는 1217억원(수용인원 4만여명)으로 5년간 총 적자액은 72억원이었으며, 5년간 총 시설개보수비는 7억원 ▲한밭주경기장의 총사업비는 233억원(수용인원 2만여명)으로 5년간 총 적자액은 119억원이었으며, 5년간 총 시설개보수비는 109억원에 달함. <표 4 참조>

<표4-인천, 대전지역내 체육시설 현황>

| | 경기장명 | 일반현황 | | 2007~2011년 | |
|----|--------------------|-----------------|-------|------------|-------------|
| | | 총사업비 | 수용인원 | 총 시설개보수비 | 총 흑적자액 |
| | | 계 | | | |
| 인천 | 인천월드컵경기장 (주경기장) | 2543억 5000만원 | 5만명 | 41억1147만원 | -112억7029만원 |
| | 문학야구장 | 501억 1000만원 | | | |
| 대전 | 한밭야구장 | 36억 6700만원 | 1만명 | 31억4229만원 | -54억1292만원 |
| | 월드컵경기장 | 1217억원 | 4만2천명 | 7억4737만원 | -72억3079만원 |
| | 한밭주경기장 | 233억 1300만원 | 2만6천명 | 109억1200만원 | -119억9773만원 |

<출처: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출한 자료 토대로 김희정의원실에서 분석>

-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자주 열려 흑자 운영하는 곳도 있음. 광주의 월드컵경기장이 이에 해당함. 광주월드컵경기장의 총사업비는 1587억원(수용인원 4만여명)으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총 흑자액은 100억원이며, 3년간 총 시설개보수비는 4억여만원이었음.
- 그러나, 같은 지역내의 광주무등야구경기장은 적자운영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 광주시 무등야구경기장의 총사업비는 16억원(수용인원 1만여명)으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총적자액은 15억원이었으며, 3년간 총 시설개보수비는 7억원이었음. 울산도 마찬가지 상황임. ▲울산시 문수월드컵경기장의 총사업비는 1514억원(수용인원 4만여명)으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총 적자액은 46억원이었으며, 5년간 총 시설개보수비는 2억원 ▲울산시 종합운동장주경기장의 총사

업비는 736억원(수용인원 1만9천여명)으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총 적자액은 1억원이었으며, 5년간 총 시설개보수비는 3억원에 달했음. <표5 참조>

<표5-광주, 울산지역내 체육시설 현황>

| | 경기장명 | 일반현황 | | 2007~2011년 | |
|----|-------------|--------------|----------|-------------------------|---------------------------|
| | | 총사업비 | 수용인원 | 총 시설개보수비 | 총 흑적자액 |
| | | 계 | | | |
| 광주 | 무등 야구경기장 | 16억 5300만원 | 1만2,631명 | 7억4689만원 (*2009~2011년만) | -15억9542만원 (*2009~2011년만) |
| | 월드컵경기장 | 1587억 8800만원 | 4만245명 | 4억5502만원 (*2009~2011년만) | 100억6551만원 (*2009~2011년만) |
| 울산 | 종합운동장 주경기장 | 736억 4400만원 | 1만9,471명 | 3억649만원 | -1억5170만원 |
| | 울산문수 월드컵경기장 | 1514억 200만원 | 4만4,102명 | 2억626만원 | -46억6222만원 |

<출처: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출한 자료 토대로 김희정의원실에서 분석>

- 경기지역도 비슷한 상황임. 안산의 와스타디움종합경기장을 제외하면 5년동안의 현황을 보면 대부분이 적자운영 상태. 안산의 와스타디움도 1128억원의 총사업비(수용인원 3만명)가 들어가 2007, 2008, 2011년 3년간 총 7억원을 흑자를 내고, 같은 시기동안 총 시설개보수비로 2천여만원을 사용했음.
- 그러나, 경기도내에 다른 지역은 매년 적자운영. 경기지역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시설 운영현황을 보면 ▲수원종합운동장(주경기장)의 총사업비는 83억원(수용인원 1만여명)으로 5년간 총 적자액은 33억원

이었으며 ▲수원종합운동장(야구장)의 총사업비는 62억원(수용인원 1만여명)으로 5년간 총 적자액은 25억원 ▲안양종합운동장의 총사업비는 111억원(수용인원 2만여명)으로 5년간 총 적자액은 18억원이었으며, 5년간 총 시설개보수비는 4억원 ▲부천시종합운동장의 총사업비는 1187억원(수용인원 3만여명)으로 5년간 총 적자액은 90억원이었으며, 5년간 총 시설개보수비는 8억원 ▲용인시 종합운동장의 총사업비는 47억원(수용인원 1만여명)으로 5년간 총 적자액은 9억원이었으며, 5년간 총 시설개보수비는 1억원 ▲고양시 종합운동장의 총사업비는 1143억원(수용인원 4만여명)으로 5년간 총 적자액은 29억원이었으며, 5년간 총 시설개보수비는 3억원 ▲평택 소사벌레포츠타운 종합운동장의 총사업비는 29억원(수용인원 1만5천여명)으로 5년간 총 적자액은 121억원이었으며, 5년간 총 시설개보수비는 109억원 ▲평택 서부공설운동장의 총사업비는 46억원(수용인원 1만2천여명)으로 5년간 총 적자액은 4억원이었으며, 5년간 총 시설개보수비는 3억원 ▲의정부시 종합운동장의 총사업비는 774억원(수용인원 2만8천여명)으로 5년간 총 적자액은 122억원 ▲하남시의 종합운동장 및 국민체육센터의 총사업비는 601억원(수용인원 1만7천여명)으로 5년간 총 적자액은 43억원 ▲이천시 종합운동장의 총사업비는 254억원(수용인원 1만9천여명)으로 5년간 총 적자액은 7억원이었으며, 5년간 총 시설개보수비는 7천여만원 ▲동두천시 종합운동장의 총사업비는 161억원(수용인원 1만3천여명)으로 5년간 총 적자액은 14억만원 ▲여주 종합운동장의 총사업비는 48억원(수용인원 2만여명)으로 5년간 총 적자액은 18억원이었으며, 5년간 총 시설개보수비는 14억원이었음. <표6 참조>

<표6-경기지역내 체육시설 현황>

| 경기장명 | 일반현황 | | 2007~2011년 | |
|---------------------------------------|-----------|----------|------------------------------|--------------------------------|
| | 총사업비 계 | 수용인원 | 총 시설개보수비 | 총 흑적자액 |
| 수원종합운동장 (주경기장) | 83억6600만원 | 1만1,808명 | 0 | -33억99,05만원 |
| 수원종합운동장 (야구장) | 62억원 | 1만4,465명 | 0 | -25억6108만원 |
| 성남 탄천종합운동장 (축구장, 육상경기장) | 1088억원 | 1만6,839명 | 58억3297만원 | -48억9457만원 |
| 성남종합운동장 (축구장, 육상경기장) | 25억원 | 2만1,149명 | 12억9652만원 | -9억9012만원 |
| 안산 와-스타디움 종합경기장 | 1128억원 | 3만5,000명 | 2000만원 (*2007,2008,2011년) | 7억2951만원 (*2007,2008,2011년) |
| 안양종합운동장 | 111억원 | 2만5,000명 | 4억7822만원 | -18억0419만원 |
| 부천시종합운동장 | 1187억원 | 3만5,000명 | 8억5737만원 | -90억65만원 |
| 용인종합운동장 | 47억원 | 1만2,000명 | 1억3472만원 | -9억2275만원 |
| 고양종합운동장 | 1143억원 | 4만1,000명 | 3억9591만원 | -29억1423만원 |
| 평택 소사벌레포츠타운 종합운동장 | 29억원 | 1만5,000명 | 109억6500만원 | -121억7910만원 |
| 평택 서부 공설운동장 | 46억원 | 1만2,000명 | 3억9107만원 | -4억324만원 |
| 의정부 종합운동장 | 774억원 | 2만8,000명 | 0 | -122억890만원 |
| 화성종합경기타운 (주경기장, 보조경 기장, 실내체육관등) | 2191억원 | 3만5,514명 | 0 | -10억1598만원 |
| 하남종합운동장 및 국민체육센터 | 601억원 | 1만709명 | 3억8673만원 | -43억3484만원 |
| 이천시 종합운동장 | 254억원 | 1만9,482명 | 7419만원 | -7억1034만원 |
| 동두천시 종합운동장 | 161억원 | 1만3,983명 | 0 | -14억4166만원 |
| 여주 종합운동장 | 48억원 | 2만1,600명 | 14억2800만원 | -18억3507만원 |

<출처: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출한 자료 토대로 김희정의원실에서 분석>

□ 강원도 지역은 모두 적자운영임. 강원지역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시설 운영현황을 보면 ▲원주시 종합운동장의 총사업비는 34억원(수용인원 1만5천여명)으로 5년간 총 적자액은 81억원였으며, 5년간 총 시설개보수비는 73억원 ▲강릉시 종합운동장의 총사업비는 65억원(수용인원 2만여명)으로 5년간 총 적자액은 33억원이었으며, 5년간 총 시설개보수비는 32억원 ▲속초시 종합운동장의 총사업비는 115억원(수용인원 2만5천여명)으로 5년간 총 적자액은 7억원 ▲삼척시 공설운동장의 총사업비는 97억원(수용인원 1만여명)으로 5년간 총 적자액은 9억만원이었으며, 5년간 총 시설개보수비는 3천여만원임. 춘천시 송암스포츠타운 종합운동장도 총사업비는 420억원(수용인원 2만5천여명)으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총 적자액은 14억원이었으며, 3년간 총 시설개보수비는 9천여만원이 투입됐음. 정선군 종합운동장도 마찬가지로 상황. 총사업비는 845억원(수용인원 1만2천여명)으로 2011년 한해동안 적자액은 1억원임. <표7 참조>

<표7-강원지역내 체육시설 현황>

| 경기장명 | 일반현황 | | 2007~2011년 | |
|---------------------|------------|----------|-------------------------|-----------------------------|
| | 총사업비 계 | 수용인원 | 총 시설개보수비 | 총 흑적자액 |
| 춘천 송암스포츠타운 종합경기장 | 420억원 | 2만5,000명 | 9266만원 (*2009-2011년) | -14억7576만원 (*2009-2011년) |
| 원주 종합경기장 | 34억원 | 1만5,000명 | 73억1100만원 | -81억774만원 |
| 강릉 종합운동장 | 65억원 | 2만1,416명 | 32억5000만원 | -33억9911만원 |
| 속초 종합경기장 | 115억원 | 2만5,000명 | 0 | -7억4921만원 |
| 삼척 공설운동장 | 97억8600만원 | 1만5,000명 | 3549만원 | -9억3851만원 |
| 정선 종합경기장 | 845억4300만원 | 1만2,000명 | 0 (*2011년만) | -1억807만원 (*2011년만) |

<출처: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출한 자료 토대로 김희정의원실에서 분석>

□ 충청지역도 적자운영을 면치 못하는 상황. 충청지역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시설 운영현황을 보면 ▲청주시 종합운동장의 총사업비는 78억원(수용인원 3만명)으로 5년간 총 적자액은 3억원이었으며, 5년간 총 시설개보수비는 6천여만원 ▲제천시 종합운동장의 총사업비는 40억원(수용인원 3만5천여명)으로 5년간 총 적자액은 37만원이었으며, 5년간 총 시설개보수비는 37억원 ▲천안시 종합운동장의 총사업비는 707억원(수용인원 3만2천여명)으로 5년간 총 적자액은 38억원이었으며, 5년간 총 시설개보수비는 11억원 ▲공주시민운동장의 총사업비는 61억원(수용인원 1만명)으로 5년간 총 적자액은 3억원이었으며, 5년간 총 시설개보수비는 1억원 ▲보령시 종합운동장의 총사업비는 138억원(수용인원 2만5천여명)으로 5년간 총 적자액은 20억원이었으며, 5년간 총 시설개보수비는 16억원 ▲논산시 공설운동장의 총사업비는 215억원(수용인원 2만여명)으로 5년간 총 적자액은 29억만원이었으며, 5년간 총 시설개보수비는 7억5천여만원 ▲홍성군 홍주종합경기장의 총사업비는 163억원(수용인원 1만5천여명)으로 5년간 총 적자액은 22억여만원이었으며, 5년간 총 시설개보수비는 9억원 ▲예산군 공설운동장(육상경기장)의 총사업비는 24억원(수용인원 1만여명)으로 5년간 총 적자액은 11억원이었으며, 5년간 총 시설개보수비는 6억원이다. 아산시 이순신 종합운동장도 적자운영이다. 총사업비는 634억원(수용인원 1만9천여명)으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4년간 총 적자액은 284만원이었으며, 동일기간동안 4년간 총 시설개보수비는 171만원을 투입하고 있음. <표8 참조>

<표8-충청지역내 체육시설 현황>

| | 경기장명 | 일반현황 | | 2007~2011년 | |
|----|--------------------|----------------|----------|-------------------------|-------------------------|
| | | 총사업비 계 | 수용인원 | 총 시설개보수비 | 총 흑적자액 |
| 충북 | 청주종합경기장 | 78억원 | 3만명 | 6600만원 | -3억5168만원 |
| | 제천종합운동장 | 40억원 | 3만5천명 | 37억7100만원 | -37억8088만원 |
| 충남 | 천안시종합운동장 | 707억원 | 3만2천명 | 11억3652만원 | -38억4128만원 |
| | 공주시민운동장 | 61억원 | 1만명 | 1억6843만원 | -3억660만원 |
| | 보령종합경기장 | 138억원 | 2만5천명 | 16억910만원 | -20억3894만원 |
| | 논산시공설운동장 | 215억 4600만원 | 2만명 | 7억5369만원 | -29억3538만원 |
| | 홍주종합경기장 | 163억원 | 1만5천명 | 9억1034만원 | -22억2098만원 |
| | 예산공설운동장 (육상경기장) | 24억원 | 1만명 | 6억300만원 | -11억9521만원 |
| | 아산시이순신 종합운동장 | 634억원 | 1만9,283명 | 171만원 (*2008~2011년분) | 284만원 (*2009~2011년분) |

<출처: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출한 자료 토대로 김희정의원실에서 분석>

□ 전남·북지역도 상황은 마찬가지임. 전남·북 지역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시설 운영현황을 보면 ▲전주시 종합운동장(육상경기, 축구장, 야구장 등)의 총사업비는 56억원으로 5년간 총 적자액은 28억원이었으며, 5년간 총 시설개보수비는 1억원 ▲전주 월드컵경기장의 총사업비는 1365억원(수용인원 4만명)으로 5년간 총 적자액은 24억원이었으며, 5년간 총 시설개보수비는 18억원 ▲군산시 월명야구장의 총사업비는 22억원(수용인원 1만명)으로 5년간 총 적자액은 16억원이었으며, 5년간 총 시설개보수비는 14억원 ▲익산시 공설운동장의 총사업비는 79억9천여만원(수용인원 1만8천여명)으로 5년간 총 적자액은 26

억원이었으며, 5년간 총 시설개보수비는 1억원 ▲정읍시 종합경기장의 총사업비는 17억원(수용인원 1만5천명)으로 5년간 총 적자액은 2억원 ▲남원시 공설운동장의 총사업비는 123억원(수용인원 1만명)으로 5년간 총 적자액은 2억원 ▲고창군 공설운동장의 총사업비는 123억원(수용인원 1만2천여명)으로 5년간 총 적자액은 3억원 ▲목포시 유달경기장의 총사업비는 26억원(수용인원 1만명)으로 5년간 총 적자액은 6억원이었으며, 5년간 총 시설개보수비는 4억원 ▲여수시 진남경기장의 총사업비는 56억원(수용인원 1만5천여명)으로 5년간 총 적자액은 3억원 ▲여수시 망마경기장의 총사업비는 153억원(수용인원 1만7천여명)으로 5년간 총 적자액은 13억원이었으며, 5년간 총 시설개보수비는 9억원 ▲순천시 팔마종합운동장의 총사업비는 51억원(수용인원 1만명)으로 5년간 총 적자액은 6억원이었으며, 5년간 총 시설개보수비는 5억원이 소용됨. 영광군 종합운동장도 총사업비는 256억원(수용인원 1만명)으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년간 총 적자액은 14억원이었으며, 같은 기간동안 총 시설개보수비는 6천여만원이 들어감. <표9 참조>

<표9-전남북 지역 체육시설 현황>

| | 경기장명 | 일반현황 | | 2007~2011년 | |
|---------|--------------------|------------|-------------------------|-----------------------------|------------|
| | | 총사업비 | 수용인원 | 총 시설개보수비 | 총 흑·적자액 |
| | | 계 | | | |
| 전북 | 전주종합경기장 (육상경기장) | 50억8400만원 | 3만명 | 1억2839만원 | -28억3061만원 |
| | 전주종합경기장 (축구장) | | | | |
| | 전주종합경기장 (야구장) | 6억3300만원 | 1만명 | | |
| | 전주월드컵경기장 | 1365억원 | 4만3,141명 | 18억8471만원 | -24억7706만원 |
| | 군산월명야구장 | 22억원 | 1만1,000명 | 14억7300만원 | -16억4584만원 |
| | 익산공설운동장 | 79억9200만원 | 1만8,317명 | 1억3118만원 | -26억4243만원 |
| | 정읍종합경기장 | 17억6500만원 | 1만5,000명 | 0 | -2억9332만원 |
| | 남원공설운동장 | 123억6900만원 | 1만명 | 0 | -2억1848만원 |
| 전남 | 고창공설운동장 | 123억6700만원 | 1만2,000명 | 0 | -3억8787만원 |
| | 목포유달경기장 | 26억8800만원 | 1만명 | 4억8600만원 | -6억829만원 |
| | 여수진남경기장 | 56억9000만원 | 1만5,613명 | 200만원 | -3억1643만원 |
| | 여수망마경기장 | 153억3400만원 | 1만7,750명 | 9억원 | -13억2607만원 |
| | 순천팔마종합운동장 | 51억9800만원 | 1만2,703명 | 5억9606만원 | -6억790만원 |
| 영광종합운동장 | 256억82만원 | 1만4,079명 | 6925만원 (*2008-2011년) | -14억3692만원 (*2008-2011년) | |

<출처: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출한 자료 토대로 김희정의원실에서 분석>

- 경남·북 지역에서도 상황은 비슷함. 마산종합운동장만 빼고 나머지는 적자운영임. 마산시 종합운동장의 총사업비는 80억원(수용인원 2만1천여명)으로 2011년 한해 흑자액은 1억8천여만원이었으며 시설개보수비도 그해만 5천여만원이 들어갔음.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도내 다른 지역의 체육시설 현황을 보면 ▲포항시 종합운동장의 총사업비는 86억원(수용인원 3만명)으로 5년간 총 적자액은 27억원이었으며,

5년간 총 시설개보수비는 2천여만원 ▲경주시 시민운동장의 총사업비는 30억원(수용인원 1만명)으로 5년간 총 적자액은 7억원이었으며, 5년간 총 시설개보수비는 1억원 ▲김천시 종합운동장의 총사업비는 380억원(수용인원 2만5천명)으로 5년간 총 적자액은 8억원이었으며, 5년간 총 시설개보수비는 2억원 ▲안동시 시민운동장의 총사업비는 121억원(수용인원 1만명)으로 5년간 총 적자액은 25억원 ▲구미시 시민종합운동장의 총사업비는 47억원(수용인원 3만3천명)으로 5년간 총 적자액은 40억원이었으며, 5년간 총 시설개보수비는 34억원 ▲영주시 시민종합운동장의 총사업비는 140억원(수용인원 1만8천명)으로 5년간 총 적자액은 4억원이었으며, 5년간 총 시설개보수비는 4천여만원 ▲영천시 시민운동장의 총사업비는 81억6천여원(수용인원 1만6천여명)으로 5년간 총 적자액은 3억원이었으며, 5년간 총 시설개보수비는 1억원 ▲상주시 시민운동장의 총사업비는 74억원(수용인원 1만5천명)으로 5년간 총 적자액은 12억원 ▲칠곡군 종합운동장의 총사업비는 350억원(수용인원 1만9천여명)으로 2011년 적자액은 4억원이었으며, 2011년의 시설개보수비는 8천여만원 ▲창원시 종합운동장의 총사업비는 200억원(수용인원 3만명)으로 5년간 총 적자액은 49억원이었으며, 5년간 총 시설개보수비는 33억원 ▲창원시 축구센터의 총사업비는 1168억원(수용인원 1만5천여명)으로 2010년부터 2011년까지 2년간 총 적자액은 30억원 ▲진주시 공설운동장은 5년간 총 적자액은 6억만원이었으며, 5년간 총 시설개보수비는 4억원 ▲진주시 종합운동장의 총사업비는 1804억9500만원(수용인원 2만명)으로 2010년부터 2011년까지 2년간 총 적자액은 10억원이었으며, 2년간 총 시설개보수비는 6천

여만원 ▲김해시 운동장의 총사업비는 361억원(수용인원 1만여명)으로 5년간 총 적자액은 30억원이었으며, 5년간 총 시설개보수비는 7억원 ▲밀양시 공설운동장의 총사업비는 120억원(수용인원 1만명)으로 5년간 총 적자액은 12억원이었으며, 5년간 총 시설개보수비는 3억원 ▲양산시 종합운동장의 총사업비는 377억원(수용인원 2만여명)으로 5년간 총 적자액은 21억원이었으며, 5년간 총 시설개보수비는 1억원 ▲고성군 종합운동장의 총사업비는 79억5천여만원(수용인원 2만5천여명)으로 5년간 총 적자액은 10억원이었으며, 5년간 총 시설개보수비는 7억원 ▲거창군 종합운동장의 총사업비는 325억원(수용인원 1만여명)으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총 적자액은 8억원에 달함.

<표10 참조>

<표10-경남·북 지역 체육시설 현황>

| 경기장명 | 일반현황 | | 2007~2011년 | |
|-----------|-----------------|----------|---------------------|------------------------|
| | 총사업비 계 | 수용인원 | 총 시설개보수비 | 총 흑적자액 |
| 포항종합운동장 | 86억 4600만원 | 3만명 | 2500만원 | -27억1505만원 |
| 경주시민운동장 | 30억원 | 1만2,119명 | 1억2500만원 | -7억7157만원 |
| 김천종합운동장 | 380억원 | 2만5,000명 | 2억849만원 | -8억6483만원 |
| 안동시민운동장 | 121억원 | 1만3,804명 | 0 | -25억6567만원 |
| 구미시민종합운동장 | 47억원 | 3만3,050명 | 34억8444만원 | -40억1198만원 |
| 영주시민운동장 | 140억원 2700만원 | 1만8,000명 | 4680만원 | -4억7900만원 |
| 영천시민운동장 | 81억 6000만원 | 1만6,344명 | 1억5116만원 | -3억3268만원 |
| 상주시민운동장 | 74억원 | 1만5,042명 | 0 | -12억8717만원 |
| 칠곡종합운동장 | 350억 1800만원 | 1만9,699명 | 8789만원 (*2011년만) | -4억1324만원 (*2011년만) |

| | | | | | |
|--------|----------------------|-------------|----------|--------------------------|------------------------------|
| 경 남 | 창원종합운동장 (주.보조경기장) | 200억원 | 3만명 | 33억1900만원 | -49억6940만원 |
| | 마산종합운동장 | 80억원 | 2만1,000명 | 5571만원 (*2011년만) | 1억8362만원 (*2011년만) |
| | 마산야구장 | 69억원 | 1만6,000명 | 90억원 (*2011년만) | -89억6336만원 (*2011년만) |
| | 창원축구센터 (주.보조경기장) | 1168억원 | 1만5,071명 | 0 (*2010-2011년만) | -30억8573만원 (*2010-2011년만) |
| | 진주공설 운동장 | - | 1만7,265명 | 4억8803만원 | -6억3584만원 |
| | 진주종합경기장 | 1804억1600만원 | 2만명 | 6266만원 (*2010-2011년만) | 10억9336만원 (*2010-2011년만) |
| | 김해운동장 | 361억원 | 1만1,476명 | 7억3665만원 | -30억2474만원 |
| | 밀양공설운동장 (육상경기장) | 120억원 | 1만명 | 3억6266만원 | -12억6157만원 |
| | 양산종합운동장 | 377억원 | 2만2,000명 | 1억1996만원 | -21억633만원 |
| | 고성군종합운동장 | 79억5900만원 | 2만5,000명 | 7억4098만원 | -10억9124만원 |
| | 거창종합운동장 (거창스포츠파크) | 325억원 | 1만1,000명 | 0 (*2009-2011년만) | -8억3820만원 (*2009-2011년만) |

<출처: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출한 자료 토대로 김희정의원실에서 분석>

□ 제주지역도 지리상의 위치 등으로 인하여 적자해소가 쉽지 않은 상황임. 제주 월드컵경기장은 1083억원의 총사업비(수용인원 3만5천여명)를 투자하여 지난 5년간 총 적자액 28억원으로 5년간 총 시설개보수비만 28억원이 들어갔음. 제주종합경기장(주경기장)도 25억3천여만원을 총사업비(수용인원 2만5천여명)로 투자하여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총 적자액은 15억원에 달하며, 시설개보수비 역시 5년간 12억원을 투입했음. <표11 참조>

<표11-제주지역 체육시설 현황>

| | 경기장명 | 일반현황 | | 2007~2011년 (*2010~2011년만) | |
|--------|-----------------|-----------|----------|------------------------------|------------|
| | | 총사업비 | 수용인원 | 총 시설개보수비 | 총 흑적자액 |
| | | 계 | | | |
| 제 주 | 제주종합경기장 주경기장 | 25억3500만원 | 2만5,000명 | 12억1531만원 | -15억2190만원 |
| | 제주월드컵경기장 | 1083억원 | 3만5,657명 | 28억7886만원 | -28억5279만원 |

<출처: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출한 자료 토대로 김희정의원실에서 분석>

다. 경기장 유형별 분석현황

1) 월드컵경기장 현황

□ 서울월드컵경기장의 5년간 총 470억원으로 가장 많은 흑자운명을 하고 있었으며, 광주월드컵경기장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100억원에 총 흑자액을 냈음.

□ 그러나, 이외 월드컵경기장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음. 인천월드컵경기장의 총사업비는 2543억원(수용인원 5만여명)으로, 5년간 총 적자액은 112억원이며, 5년간 총 시설개보수비는 41억원이며, 대전월드컵경기장의 총사업비는 1217억원(수용인원 4만여명)으로 5년간 총 적자액은 72억원이었으며, 5년간 총 시설개보수비는 7억원이었음. 울산문수월드컵경기장 역시 총사업비는 1514원(수용인원 4만여명)으로 5년간 총 적자액은 46억원이었으며, 5년간 총 시설개보수비는 2억원이었고, 제주월드컵경기장은 1083억원의 총사업비(수용인원 3만5천여명)를 투자하여 지난 5년간 총 적자액 28억원으로 5년간 총 시설개보수비만 28억원

이 들어갔음. <표12 참조>

※ 수원월드컵경기장은 자료조사시 누락되어 집계되지 않았음.

<표12- 월드컵경기장 현황>

| 경기장명 | 일반현황 | | 2007~2011년 | |
|--------------------|-------------|---------|----------------------------|------------------------------|
| | 총사업비 계 | 수용인원 | 총 시설개보수비 | 총 흑적자액 |
| 서울월드컵경기장 | 2060억원 | 66,806명 | 71억6077만원 | 470억4853만원 |
| 광주월드컵경기장 | 1587억8800만원 | 40,245명 | 4억5502만원 (*2009~2011년만) | 100억6551만원 (*2009~2011년만) |
| 인천월드컵경기장 (주경기장) | 2543억5천만원 | 50,000명 | 41억1147만원 | -112억7029만원 |
| 대전월드컵경기장 | 1217억원 | 42,000명 | 7억4737만원 | -72억3079만원 |
| 울산문수 월드컵경기장 | 1514억200만원 | 44,102명 | 2억626만원 | -46억6222만원 |
| 제주월드컵경기장 | 1083억원 | 35,657명 | 28억7886만원 | -28억5279만원 |

<출처: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출한 자료 토대로 김희정의원실에서 분석>

2) 야구장 현황

□ 서울 잠실야구장을 제외하고는 모두 적자 운영 상태임. 서울시의 잠실 야구장이 5년간 총 흑자액은 16억원에 달함.

□ 그러나, 같은 서울시라고 해도, 목동야구장은 적자 운영을 하고 있음. 목동야구장 총사업비는 79억원(수용인원 1만명)으로, 5년간 총 적자액은 118억원, 5년간 총 시설개보수비는 220억원이었음.

□ 부산도 적자운영 상황임. 사직야구장의 총사업비는 135억원(수용인원 2만8천여명)으로 5년간 총 적자액은 696억원이었으며, 5년간 총 시설개보수비는 4억원이 사용되고 있음. 구덕야구장도 총사업비는 6억원(수용인원 1만여명)으로 5년간 총 적자액은 495억원이었으며, 5년간 총 시설개보수비는 8천여만원 등이 들어감.

□ 다른 지역도 상황은 비슷함. ▲대구시민야구장의 총사업비는 25억원(수용인원 1만명)으로 5년간 총 적자액은 120억원이었으며, 5년간 총 시설개보수비는 11억원 ▲인천문학야구장의 총사업비는 501억원(수용인원 1만명)으로 5년간 총 적자액은 64억원이었으며, 5년간 총 시설개보수비는 31억원 ▲대전한밭야구장의 총사업비는 36억원(수용인원 1만여명)으로 5년간 총 적자액은 54억원이었으며, 5년간 총 시설개보수비는 31억원 ▲광주 무등야구경기장의 총사업비는 16억원(수용인원 1만여명)으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총적자액은 15억원이었으며, 3년간 총 시설개보수비는 7억원 ▲수원종합운동장(야구장)의 총사업비는 62억원(수용인원 1만여명)으로 5년간 총 적자액은 25억원 ▲군산시 월명야구장의 총사업비는 22억원(수용인원 1만명)으로 5년간 총 적자액은 16억원이었으며, 5년간 총 시설개보수비는 14억원 ▲마산시야구장은 총사업비 69억원으로 1만6천명이 수용가능하지만, 2011년만 90억원이 시설개보수비를 투입하여 그해 적자액이 89억원에 달함.

□ 전주시 종합운동장은 육상경기, 축구장, 야구장 등이 함께 집계되었음. 총사업비는 56억원으로 5년간 총 적자액은 28억원이었으며, 5년간 총

시설개보수비는 1억원에 달함. <표13 참조>

<표13-전국 1만명 수용 가능한 야구장 현황>

| 경기장명 | 일반현황 | | 2007~2011년 | |
|--------------------|------------|----------|----------------------------|------------------------------|
| | 총사업비 계 | 수용인원 | 총 시설개보수비 | 총 흑적자액 |
| 잠실야구장 | 126억원 | 2만5,455명 | 86억8488만원 | 16억5481만원 |
| 목동야구장 | 79억원 | 1만600명 | 118억9819만원 | -220억3722만원 |
| 부산사직야구장 | 135억64만원 | 2만8,000명 | 4억1900만원 | -696억4190만원 |
| 부산구덕야구장 | 6억99만원 | 1만1,724명 | 8010만원 | -495억6132만원 |
| 대구시민야구장 | 25억2000만원 | 1만명 | 11억4042만원 | -120억993만원 |
| 인천문학야구장 | 501억1000만원 | 3만명 | 31억9981만원 | -64억5624만원 |
| 대전한밭야구장 | 36억6700만원 | 1만명 | 31억4229만원 | -54억1292만원 |
| 광주무등야구장 | 16억5300만원 | 1만2,631명 | 7억4689만원 (*2009~2011년만) | -15억9542만원 (*2009~2011년만) |
| 수원야구장 | 62억원 | 1만4,465명 | 0 | -25억6108만원 |
| 군산월명야구장 | 22억원 | 1만1,000명 | 14억7300만원 | -16억4584만원 |
| 마산야구장 | 69억원 | 1만6,000명 | 90억원 (*2011년만) | -89억6336만원 (*2011년만) |
| 전주종합경기장 (육상경기장) | 50억8400만원 | 3만명 | 1억2839만원 | -28억3061만원 |
| 전주종합경기장 (축구장) | | | | |
| 전주종합경기장 (야구장) | | | | |
| 전주종합경기장 (야구장) | 6억3300만원 | 1만명 | | |

2. 대형체육시설 운영 및 시설보수비 현황

가. 대형체육시설 적자운영 및 시설보수비 운영현황

□ 전국의 1만명 수용이 가능한 92곳의 운영현황을 보면, 2007년 937억6천여만원, 2008년 1094억원, 2009년 1321억원, 2010년 1372억7천여만원, 2011년 1285억6천여만원으로 5년간 총적자액은 6012억1천만원에 달함. <표14 참조>

<표14-전국 1만명 수용가능한 체육시설의 수입·지출 현황>

| | 2007년 | 2008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총계 |
|------|-------------------|-------------------|-------------------|-------------------|-------------------|-------------------|
| 총수입 | 467억 5,543만원 | 485억 678만원 | 580억 9,428만원 | 607억 8,366만원 | 696억 8,221만원 | 2,835억원 |
| 총지출 | 1,405억 5,535만원 | 1,579억 5,022만원 | 1,902억 3,799만원 | 1,980억 9,806만원 | 1,982억 9,374만원 | 8,848억원 |
| 총적자액 | 937억 6,286만원 | 1,094억 506만원 | 1,321억 332만원 | 1,372억 7,318만원 | 1,285억 6,863만원 | 6,012억 1,350만원 |

* 총수입: 입장료, 임대료, 기타수입 / 총지출: 시설관리비(전기료 및 수도료등과 경장비) 인건비, 시설개보수비, 기타지출
<출처: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출한 자료 토대로 김희정의원실에서 분석>

□ 특히 이중 매년 소용되는 총 시설개보수비는 2007년 173억8천만원에서 2008년 233억8천여만원, 2009년 451억5천여만원, 2010년 475억3천여만원, 2011년 399억9천여만원으로 5년간 투입한 총금액은 1734억여원에 달했다. <표15 참조>

<표15-전국 92곳 체육시설의 총시설개보수비 현황>

| | 2007년 | 2008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총계 |
|---------|-----------------|-----------------|-----------------|-----------------|-----------------|-------------------|
| 총시설개보수비 | 173억 8,183만원 | 233억 8,339만원 | 451억 5,857만원 | 475억 3,888만원 | 399억 9,831만원 | 1,734억 6,098만원 |

<출처: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출한 자료 토대로 김희경의원실에서 분석>

| | | | | | |
|----|---------|------|---------|---------------------|-----------------------|
| 경남 | 마산종합운동장 | 80억원 | 21,000명 | 5571만원 (*2011년만) | 1억8362만원 (*2011년만) |
|----|---------|------|---------|---------------------|-----------------------|

* 총사업비 : 건립 당시 지출한 모든 사업비

<출처: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출한 자료 토대로 김희경의원실에서 분석>

* 광주월드컵경기장, 안산와스타디움종합경기장, 마산종합운동장, 마산야구장 등은 해당 지자체에서 표기된년도 자료만 제출하였음

나. 대형체육시설 중 흑자 운영현황

□ 전국의 대형체육시설 92곳 중 5곳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흑자를 내고 있었다. 서울월드컵경기장의 5년간 총 470억원으로 가장 많은 흑자운명을 하고 있었으며, 이어 서울시의 잠실야구장이 5년간 총 흑자액은 16억원임. 광주월드컵경기장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100억원에 총 흑자액을 냈으며, 안산시의 와스타디움경기장도 2007, 2008, 2011년 등 3년간 7억원을 내면서 흑자운명을 해왔다. 마산시의 종합운동장도 2011년 한해동안 흑자액이 1억8천여만원임. <표16 참조>

<표16-전국 92곳 중 총 흑자를 내는 5곳의 체육시설 현황>

| | 경기장명 | 일반현황 | | 2007~2011년 | |
|----|------------------|-------------------|---------|-------------------------------|---------------------------------|
| | | 총사업비 | 수용인원 | 총 시설개보수비 | 총 흑자액 |
| | | 계 | | | |
| 서울 | 잠실야구장 | 126억원 | 25,455명 | 86억8488만원 | 16억5481만원 |
| | 서울 월드컵경기장 | 2,060억원 | 66,806명 | 71억6077만원 | 470억4853만원 |
| 광주 | 광주월드컵경기장 | 1,587억 8,800만원 | 40,245명 | 4억5502만원 (*2009~2011년만) | 100억6551만원 (*2009~2011년만) |
| 경기 | 안산와스타디움 종합경기장 | 1128억원 | 35,000명 | 2000만원 (*2007,2008,2011년만) | 7억2951만원 (*2007,2008,2011년만) |



결론

1. 대형체육시설 이용률 제고방안

가. 흑자 내는 5곳의 특징

- 서울월드컵경기장을 비롯한 서울잠실야구장, 광주월드컵경기장, 안산 와 스타디움종합경기장, 마산종합운동장 등 흑자를 내는 대형체육시설들에 공통적인 특징을 보면 이용객들이 접근도가 용이한 곳에 위치했거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시설이 편리한 곳이 이에 해당함.
- 특히 서울월드컵경기장은 대형쇼핑몰이 내부에 있어 주변 상건을 자연스럽게 흡수하고 있을뿐더러, 스포츠센터 및 사우나, 영화관을 운영하고 있어 지역주민들이 상시에 이용할 수 있음. 또한, 넓은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예식장도 경기장과 별개로 운영되고 있어 사용자의 이용편의를 높이고 있음. <그림1 참조>

<그림1-서울월드컵경기장내 월드컵물 시설현황>



<출처 : 서울월드컵경기장 홈페이지>

나. 적자 내는 곳의 공통적인 특징

□ 지방자치단체의 종합경기장 같은 경우 문제점이 크게 세가지로 나뉨. 첫 번째는 전국체전 등 당장 코앞에 닥칠 행사를 치루기 위해 시설을 투자할 경우가 종종 있음. 대표적인 예가 강원도 정선으로 전국 눈앞에 열릴 행사를 위해 2011년 845억원을 투입하여 종합경기장을 만들었음. 두 번째는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하여 시설을 건립했음에도 불구하고, 토지

매입 등에 따른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도심과 먼 곳에 위치하고 있어 시설이용에 불편을 호소하기도 함. 그러다보니 자연스레 편의시설이나 레포츠, 문화시설들이 같이 하지 못하고 있어 이용률이 낮아짐.

- 이러한 문제는 월드컵경기장을 지을 때부터 이미 예견됐던 것임. 특히 제주지역 같은 경우 지리적 위치 때문에 국제경기를 자주 개최하지 못하면, 적자운영을 해소하기 어렵다고 했음.¹⁾ 다행이도 SK그룹의 제주유나이티드 프로축구단 출범으로 월드컵경기장 운영이 활성화된 것을 기대했지만, 2007년 적자액은 9억7천여만원, 2008년 5억4천여만원, 2009년 8억2천여만원, 2010년 5억7천여만원, 2011년 11억원에 달함.
- 또한, 최근 언론에 보도된 화성종합경기타운도 2011년 준공이후 올림픽 국가대표 축구팀의 평가전 한게임이, 이곳에서 치러진 경기의 전부다. 더욱이 화성시의 재정자립도가 67.1%로 부족한 예산은 중앙정부의 보조금으로 채우고 있어, 화성종합경기타운은 ‘돈먹는 하마’라고 불리우며, 준공 1년도 안되어 혈세만 낭비한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음.

□ 이처럼 대형체육시설 건립 때부터 지자체의 재정상황 및 이용방안을 꼼꼼히 따져보지 않고, 무분별하게 대형 스포츠시설을 건립할 경우 앞서 언급된 일들이 일어남. 특히 매년 감각상각을 염두하여 투입하는 시설개보수비를 비롯 인건비, 시설관리비 등 지출액은 수입의 몇곱절이 되고 있음.

1) 제주도민일보, [오피니언] ‘돈먹는 하마’ 월드컵경기장, 2011-11-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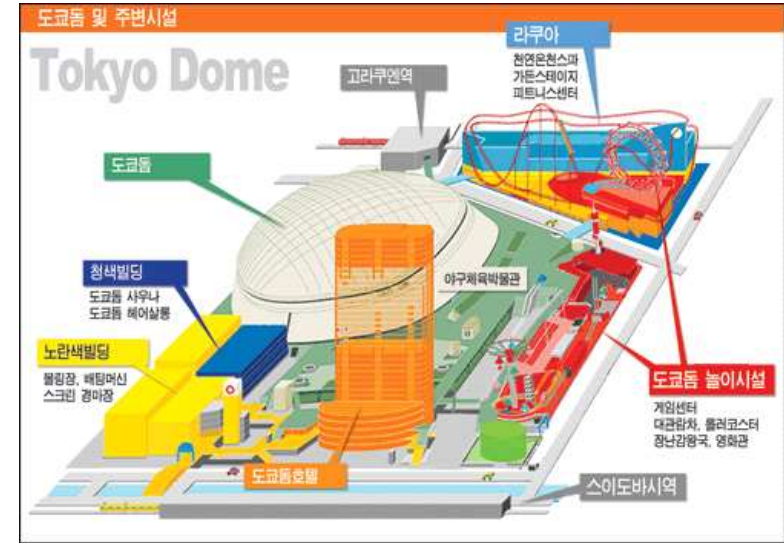
다. 해외 대형체육시설 운영 사례

□ 일본의 도쿄돔은 야구장이 아닌 그 자체가 종합유원지임. 정식명칭도 '도쿄돔 어뮤즈먼트파크(놀이동산)'으로, 일단 고라쿠엔역과 스이도바시역 등 2개의 전철역이 통과하겠끔 만들어 이용이 편리함. 또한 서쪽 입구에는 대형스크린 경마장을 만들어 야구경기가 없는 날인데도 불구하고 스크린 경마장을 찾는 이들이 줄을 잇고 있음. 또한, 고라쿠엔역으로 야구장과 함께 놀이시설인 게임센터, 영화관, 롤러코스터, 장난감왕국 등이 연결되어 있으며, 그 옆으로는 온천스파와 피트니스센터 등이 있어 사람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고 있음.

□ 또한, 야구팬들을 위해 돔구장 안에 '일본야구체육박물관'을 만들어 프로, 아마추어 경기 등에서 사용한 유명선수들의 유니폼, 글러브, 배트 등 애장품을 전시해냈으며, 과거 야구경기의 기록도 관람객이 직접 찾아볼 수 있도록 하여, 이곳을 돔의 필수방문코스로 만들고 있음.2)

2) 스포츠조선, [베이스볼 프라자] 선진야구의 현장 '일본 도쿄돔' 탐방기, 기사 2008-11-17

<그림2-도쿄돔 및 주변시설 현황>



<출처: 스포츠조선, 일본 '도쿄돔' 탐방기 기사의 그림, 2008-11-17>

□ 미국의 뉴욕에 위치한 메디슨스퀘어가든 역시 종합적인 스포츠 시설에 엔터테인먼트 시설이 더해져 엘비스프레슬리나 마돈나 등이 공연은 물론 클린턴과 고어가 대선후보가 될 때 민주당 전당대회가 열리기도 했음.

□ 메디슨스퀘어가든은 뉴욕시의 대표적인 명소로, 1800년대말 메디슨 광장에 북미 최초로 인공 아이스링크를 만들고, 1902년 미국의 대중스포츠인 풋볼경기 시설을 실내최초로 만들면서 종합스포츠 시설로 구색을 갖추기 시작했음. 최근에는 미국의 프로농구팀 뉴욕 닉스의 홈구장임과 동시에 테니스, 복싱, 레슬링 등 각종 경기가 열리고 있으며, 이곳에서 매년

NBA의 신인선발 드래프트가 열리고 있어 있음.

- 메디슨스퀘어가든은 오랜 전통을 지닌 유명한 경기장으로도 유명하지만,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1만9천여명이 수용할 수 있어 수많은 스타의 공연장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음. 최근 한류열풍으로 국내 SM 소속 연예인들이 콘서트를 치러 세계적인 이목이 집중되는 곳임.

라. 정책제언

-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체육시설을 건립할 때부터 문화·체육복합시설을 지으면 10% 정도는 국고 지원을 해주고 있음.
- 일부는 개선되고 있지만, 문제는 지자체가 자체예산으로 대형체육시설을 건립할 경우 행정안전부에서 중앙투자융자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화성시의 종합경기장처럼 시설의 이용률과 경제성 등이 제대로 고려되지 않는 사각지대들이 발생함.
- 앞으로 지자체에서 대형체육시설을 지을 경우 행안부와 협조를 구해서 문광부가 시설의 입지 여건 및 이용률 제고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도록 부처간이 논의가 필요함.
- 지자체에 대해서는 대형체육시설을 건립할 때부터 경제성과 이용률 고려하도록 당부하고, 여건이 허용되면 투자심사에 대한 상담·담도 해주는

등 적극적인 역할 모색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아울러, 기존의 체육시설도 리모델링을 할 경우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야 함.

IV

부 록

